



◆ 미 수은,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적극 지원

미 수은은 최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(sub-Saharan Africa)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. 미 수은은 이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최우선 업무로 선정하여 최근 수출촉진단을 파견한 바 있다.

미 수은의 Joseph Grandmaison 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출촉진단은 2002년

2월 이디오피아, 케냐, 나이지리아 등을 방문하여, 미국산 재화와 용역을 수입하는 아프리카 지역내 수입자들을 대상으로 미 수은의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.

미 수은은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47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거래에 대해 금융지원을 검토중이다.

【워싱턴주재원】